

오산시, 세교3신도시 한국형 실리콘밸리 구상

세교3·운암뜰AI시티·터미널부지에 AI산업·R&D 조성 반도체 기업·UN 6개기구 입지 시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경기도 오산시가 세교3신도시에 인공지능(AI) 허브를 유치함으로써 오산을 직주락이 아우러진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16일 밝혔다.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AI 허브 한국 유치전'에 뜻을 같이하겠다고 사실상 천명하고 오산을 세계 일류의 산업 및 연구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오산시에 따르면 글로벌 AI허브는 △AI 기술, 정책, 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점형성 △미래 산업에 주도권을 결정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에 해당한다.

이런데 시장은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한 오산이 산업, 연구, 힐링이 한데 어우러진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도약할 기회가 왔다. 수도권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도시인 오산이 지정학적 모든 관점에서 AI

허브 유치에 최적지라 판단하고 있다"며 "성과를 떠나 정부, 국회 등과 조당적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세교3신도시 프로젝트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프로젝트 △세교1 터미널부지 복합개발 프로젝트에 AI 첨단산업 관련 연구센터(R&D) 등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을 필두로 글로벌 AI허브 한국 유치전에 돌입했으며, 지역 국회의 원도 관심을 갖고 있고 관련 산업 집적화는 물론 우수 인재가 모여 있는 지정학적 여건으로 유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유치를 구상 중이다.

실제로 3월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기구(WFP) 등 6개 UN



오산시가 세교3신도시에 인공지능(AI) 허브를 유치를 추진한다. 세교3지구 예정지 일원 기장산업단지.

오산시

기구가 한국 정부의 AI 허브 유치 구상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협력의향을 체결할 바 있기도 하다.

해당 6개 UN기구들은 AI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인공지능 기술 제휴(UNDP) △일자리 감소, 일자리 전환(ILO) △인구이동, 기후변화, 난민이동(IOM) △반도체 생산, 검사 공정에서의

불량 최소화(ITU) △의료 하드웨어 관련 산업 육성(WHO) △식량부족, 작황분석, 식량배분(WFP) 등을 연구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국가 의제로 이미 6개 기구를 한국에 유치, AI 허브를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고 이미 다른 국내 지자체들이 도전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서둘러 도전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 "단순히 반도체 소부장 기업뿐만 아니라 AI가 중심이 되는 시대에 AI를 활용한 식량, 인구 이동, 의료 기술과 해당 기술에 따라오는 윤리문제 등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오산으로 밀려온다면 분명 명 도시 브랜드 가치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오산=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안성시 '청년문화예술패스' 열기 후끈

발급률 75% 돌파... 조기 마감 '임박' 19~20세 청년에 1인당 15만 원 지원



경기도 안성시가 지역 청년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발급률 75%를 돌파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14일 기준 발급 가능한 1134명 중 850명이 발급되어 약 75%의 발급률을 기록했으며 잔여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20세

청년(2006~2007년생)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공연·전시·영화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20세까지 확대하고 협력 예매처를 확대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공연·전시 분야는 인터파크(NOL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멜론티켓에서 사용 가능하며 영화 분

야는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에서 이용할 수 있다.

1차 신청은 6월30일까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착순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조기 마감에 예상된다.

또한 발급받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차 발급자의 경우 7월31일까지 사용 실적이 없으면 지원

금이 회수되므로 기한 내 사용이 필요하다.

안성시 관계자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부담 없이 경험하며 문화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다"라며 "신청을 미루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 청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광주시 '그리니와 크리니' 캐릭터 상표권 등록 완료

경기도 광주시가 시 공식 캐릭터인 '그리니와 크리니'에 대한 특허청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상표는 특허청 상품분류 기준 총 6종으로 △제9류(전자기기) △제18류(가방·지갑) △제21류(주방용품) △제25류(의류) △제28류(완구·오락기구) △제35류(광고·기업경영) 등이 포함됐다.

상표 등록 과정에서는 기존 등록 상표와의 명칭 유사성으로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광주시는 '그리니·크리니'가 시를 대표하는 공공 캐릭터로서 갖는 상징성과 공적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 최종 등록을 이끌어 냈다.

이번 등록으로 광주시는 앞으로 10년간 해당 캐릭터에 대한 독점적 상표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시는 2025년 5월 캐릭터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하는 등 단계적인 권리 확보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제3자가 '그리니·크리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42만 광주시민의 사랑을 받는 '그리니·크리니'의 무분별한 도용을 방지하고 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확보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차별화된 홍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경기도 '시화 해역 주황색 적조' 무해성 야광충 확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14일 안산 시화나래휴게소 인근 해역에 나타난 주황색 띠 형태를 조사한 결과 독성이 없는 적조생물 '야광충'이 대량 번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소 조사 결과 해당 해역에는 리터당 약 20만 개체 수준의 야광충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광충은 인체나 수산물 안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먹이생물 증가, 해류 이동, 해수 정체 등의 조건이 겹치면 곳에 모이는 습성이 있다.

연구소는 겨울철 연안 전반에 저밀도로 분포하던 개체군이 봄철 환경 변화에 따라 항구 내부로 집중되면서 바닷물이 주황색이나 적갈색으로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산 시화나래휴게소 인근 해역에 나타난 주황색 띠 형태를 조사한 결과 독성이 없는 적조생물 '야광충'이 대량 번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광충 집적 현상.

레가 있었으며 올해 역시 3.4월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어업인과 관계기관에 사전 안내한 바 있다.

현재까지 야광충 자체로 인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량 발생 이후 사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산소가 줄어드는 등 수질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측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야광충은 독성이 없는 생물로 과도한 우려는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 해역에 국지적으로 밀집될 수 있는 만큼 해양환경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며 "정기적인 해양환경 조사를 통해 연안 생태계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 현상 발생 시 SNS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1당 20만 개체 분포로 색 변화 인체·수산물 안전에 영향 없어

연구소는 '경기바다 환경조사'를 통해 매월 2회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야광충 출현 경향을 지속 관찰해 왔다. 작년 4월 화성 공평항에서도 유사한 사

평택시,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센터 이달부터 시범운영

경기도 평택시가 스마트시티의 미래를 체험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인 '평택시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센터'(이하 센터)의 문을 열고 9월 정식 운영에 앞서 이달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 중에 있다.

16일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역 앞에 있는 센터는 국토교통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하나로 구축되었으며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 실험실(리빙 랩)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새싹 기업(스타트업) 육성, 스마트시티 정책 홍보 및 체험 시설을 두루 갖춘 스마트시티 종합 지원시설이다.

센터는 시범운영 동안 다양한 교육과

체험 콘텐츠를 선보이며 시민들이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과 정책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이달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시민 경제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AI에 관심 있는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10명 내외의 소수 정예로 운영한다. 이후에도 전문가 초빙을 통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규교육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된다. 가상현실(VR) 체험, OX 퀴즈, 탄소중립 보드게임 등을 통해서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스마트시티'를 쉽

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상했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센터 내 회의실을 무료로 대여하는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역 내 유망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새싹 기업 지원 공간도 본격 가동된다. 센터는 최근 평택시 소재 창업 10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최종 3개사를 선정하고 이달 중 입주를 마무리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개별 사무실과 공용 회의실, 사무기기 등이 최대 3년간 무료로 지원된다. 센터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평택시가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센터 9월 정식 운영에 앞서 8월부터 시범운영을 한다.

평택시

평택시 관계자는 "8월까지 이어지는 시범운영 동안 시설과 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운영 최적화를 꾀하여 9월 정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안산시, 공동체 복합시설 4·16 생명안전공원 점검

경기도 안산시가 14일 공동체복합시설과 4·16생명안전공원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이민근 시장은 시공사 및 감리단과 함께 공사 현장 내외부를 직접 살피며 마감 상태와 시공 품질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공공시설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빙기 기온 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안전 보호구 착용과 정리정돈 등 기본 수칙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안산공동체복합시설'은 고잔동 426-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총사업비 161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14.08㎡ 규모로 건립된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지역사회의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고 생명·안전·복지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학생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지역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16생명안전공원'은 초저층 667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472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375.25㎡ 규모로 건립된다.

안산=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안산시가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이민근(왼쪽 두 번째) 시장이 14일 4·16생명안전공원-공동체 복합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안산시

남양주, 대형 물류창고 대상 화재예방 현장 캠페인 실시

경기도 남양주시가 14일 화도읍과 수동면 일대 대형 물류창고시설에서 '민관 합동 화재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연면적 4만㎡ 이상 대규모 창고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점검과 안내를 통해 관계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화도읍 및 수동면 일대 대형 물류창고 4개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집중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상 시설은 △쿠팡-GS 네트워크 물류센터(화도읍 차산리) △저온물류센터(화도읍 차산리) △롯데주류-로지비 물류센터(화도읍 창현리) △오뚜기빙그레 물류센터(수동면 운수리) 등이다.

현장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집중 안내했으며 자체 화재안전점검 실시와 설비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형 창고시설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 시 피해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어 사전 점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대형 물류시설은 화재 발생 시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